

유관기관 동정

- 과학기술부 -

전략기술수출통제제도 설명회 개최

과학기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허영섭)는 새로운 국제규범으로 부상하고 있는 “전략기술수출통제제도”에 대한 산업계의 이해와 편의를 위해 「2007년 제1회 전략기술수출통제제도 설명회」를 2월 27일(화) 오후 3시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대회의실(서울 양재동 소재)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과기부, 산자부, 국정원, 산기협 담당자들이 기업의 수출담당 실무관계자 70여명을 대상으로 전략기술·물자 수출통제제도를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기업의 인지도와 이행실태를 소개하여 기업이 자발적으로 전략기술수출통제제도를 준수하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전략기술’이란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주는 재래식

무기 및 핵무기·생화학무기·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WMD)의 개발·제조·사용 및 저장 등에 이용될 수 있는 기술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기술(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공고, '06.9.8)이다.

전략기술을 과기부장관의 승인 없이 수출한 경우 「기술개발촉진법」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질 뿐만 아니라, 바세나르체제(WA) 등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에 부적격거래자로 통보되어 무역제한조치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과기부는 이번 설명회가 전략기술의 불법수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방사선비상진료기관지원사업 시행

- '07년 방사선비상진료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 심의·확정 -

원전사고나 방사능테러에 대비한 전국방사선비상진료체계가 비상대응중심으로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과학기술부는 21일 비상진료기관지원심의위원회(위원장:원자력국장)를 개최하여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7년도 방사선비상진료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2007년도에는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비상대응능력강화에 중점을 두어 방사선비상진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비상진료 지정기관 및 유관기관과 방사능재난 대비 공동대응태세를 유지하고, 권역별 합동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비상진료 거점기관 육성 및 비상대응능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기부가 지정한 18개 비상진료지정기관은 기관별로 비상진료체계를 수립·운영하여 비상시 환자진

료를 위한 상시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또 비상진료 및 현장대응 요원의 실무능력 함양과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할 계획이다. 방사능 방재 훈련과 비상진료기관 합동훈련을 통해 비상대응능력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방사선사고 현장 및 환자수용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지원해 물적 기반을 강화하고, 방사선비상진료 교육 프로그램을 보유한 국내·외 전문기관의 교육을 통해 비상진료요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방사능 재난시 상호지원을 위한 협력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과학기술부는 방사능재난에 대비한 의료분야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확충하고 방사선비상 의료대응체제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부 대표단 제8차 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FNCA) 참가

과학기술부는 2월 7일(수)부터 2월 9일(금)까지 일본 동경에서 개최하는 제8차 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FNCA : Forum of Nuclear Cooperation in Asia) 국가조정관 회의에 참가하였다.

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은 아시아 지역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 및 공동연구를 위한 국제회의로서,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지역 10개국이 참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02년 제1차 국가조정관회의부터 매년 참석하여 아·태 지역 국가와의 원자력 협력 활동을 통해 한국의 원자력기술 수출기반 구축 및 국제적 위상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각 회원국은 연구용 원자로 이용, 방사선의 의학적·농학적 이용,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9개 분야의 지역내 협력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리측 대표단은 회의에서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의 안전운전 경험을 타 회원국에 전파하고 국내의 방사선 기술을 이용한 폐수처리 장치를 홍보하였으며 연구용 원자로 이용 분야에서는 좌장으로 회의를 주관하였다.

금번 국가조정관회의는 11월 일본에서 개최예정인 제8차 FNCA 장관급회의를 사전 준비하는 실무회의의 일환이다.

회원사 동정

한국원자력연구소

『IAEA 중성자 빔 기술 및 응용 고급 훈련과정』 개최

- 8개국 15명 참가, 하나로 중성자빔 장치 설치 및 운영 노하우 전수 -

세계 정상급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HANARO)의 중성자 빔 이용 장치들의 설치 및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교육 프로그램이 국내에서 개최된다.

한국원자력연구소(소장 박창규)는 2월 26일(월)부터 3월 2일(금)까지 5일간 연구소내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INTEC)에서 'IAEA-RCA(지역간 협력) 중성자 빔 기술 및 응용 고급 훈련과정'을 개최한다. 과학기술부와 IAEA가 공동 주최하고 원자력연구소가 주관하는 이번 훈련과정은 2005~2006년도 IAEA 지역 협력사업의 하나로, 지난 2004년 원자력연구소에서 개최한 '중성자 빔 이용 장치 설계 및 전산모사 전문가회의'의 후속 과정이다.

이번 과정에는 중국과 인도 파키스탄 베트남 태국 말레

이시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 IAEA-RCA 8개 회원국의 중성자 빔 이용 실무자 15명이 참가, 원자력연구소의 중성자 빔 이용 전문가 5명 및 외국(인도) 초빙 전문가 등 6명의 강사진의 지도로 발표와 강의, 실습 및 토론 교육을 받는다. 이번 과정에 참가한 회원국들은 자국 내에 보유한 연구용 원자로에 중성자 빔 이용 장치들을 일부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기술적 능력을 배양하고 이용자 그룹 양성 및 관계 설정의 경험을 전수하는 것이 이번 과정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참가자들은 ▲연구용 원자로 기반 중성자 빔 이용 시설에 대한 기술적인 이해와 이용 능력 증진 ▲중성자 빔 시설의 이용을 향상 발전시키기 위한 이용자들과의 관계 정립 ▲다양한 이용자 그룹의 요구를 이해